

제목, Theme: 포기하지 않는 사랑 **Never give up**

본문, Scripture, 누가복음 **Luke 15:1-10** 절

1.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Now all the tax collectors and the sinners were coming near Him to listen to Him**
2.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Both the Pharisees and the scribes began to grumble, saying, "This man receives sinners and eats with them."**
3.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So He told them this parable, saying**
4.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일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 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 다니지 아니하느냐 **"What man among you, if he has a hundred sheep and has lost one of them, does not leave the ninety-nine in the open pasture and go after the one which is lost until he finds it?**
5.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When he has found it, he lays it on his shoulders, rejoicing**
6.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And when he comes home, he calls together his friends and his neighbors, saying to them, 'Rejoice with me, for I have found my sheep which was lost!'**
7.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I tell you that in the same way, there will be more joy in heaven over one sinner who repents than over ninety-nine righteous persons who need no repentance**
8. 어느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Or what woman, if she has ten silver coins and loses one coin, does not light a lamp and sweep the house and search carefully until she finds it?**
9.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When she has found it, she calls together her friends and neighbors, saying, 'Rejoice with me, for I have found the coin which I had lost!'**
10.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In the same way, I tell you, there is joy in the presence of the angels of God over one sinner who repents."**

본문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온 것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원망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세리와 죄인들은 감히 자신들과 가까워 질 수 없는 버림 받은 사람들 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계명도 잘 지키고, 사랑 받고 있는 특별한 사람인 반면에 세리와 죄인들은 믿음도 없고, 죄인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사람들 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받아 들이는 예수님에 대하여 존경과 관심이 미움과 원망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리와 죄인들이 복음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1 절). 그 기쁨은 음식을 같이 먹는 관계로 발전 되었습니다(2 절).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하는 의미는 한 가족과 같은 아주 가까운 관계를 의미로 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을 마음에 두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원망하고 그 원망이 미움과 분노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망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며, 거룩하게 선택 받은 사람들이며, 율법도 잘 지키고, 선행도 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그것을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신들의 생각일 뿐 예수님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잘 못된 생각을 알고 비유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3절)

예수님의 비유 중에 “너희 중에”라고 하신 의미는 모든 유대인들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세리와 죄인들”은 유대인들 중에 비교적으로 버림을 받았거나 미움을 받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세리’는 유대인들의 돈을 빼앗아 로마에 세금을 내는데 관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싫어하며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죄인들”은 범죄자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들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예수님에 대하여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핵심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유대인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유대인이라는 것 하나에 있습니다. 물론 혈통적인 유대인을 비유로 들었지만 이것은 영적인 유대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으로 세리, 죄인, 바리새인과 서기관 등 모든 유대인들을 차별 없이 관심을 갖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부모님에게는 모든 자녀들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는 내용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양 일백 마리가 있는데”라고 하신 내용은 가족과 같은 절대적인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왜 잃었는지? 어디서 잃었는지? 누구 때문에 잃었는지? 그 어느 이유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찾아야 한다는 확실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흔 아홉 마리를 안전한 곳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려 가셨다는 것입니다(4절). 본문에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어떤 환경이었는지? 말하지 않고 ‘반드시 찾았다’는 것입니다(5절). 그리고 찾은 것에 대하여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인의 진정한 사랑을 표현하신 내용입니다.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매고”왔다는 것은 주인의 기쁨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진정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주인이 기뻐하는 것에 대하여 이웃도 함께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천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국 외에는 주인과 이웃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 7절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과 기쁨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고 가치입니다. 천국에는 모두 회개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기쁨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 버린 성도가 회개하여 천국 백성이 된 것에 대한 기쁨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에서 어떤 평가 보다 도 복음을 통하여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다음 비유에서 ‘포기하지 않는 절대적인 사랑’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여인에게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노력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한 드라크마는 하루 일당 정도의 가치였는데 그 돈의 가치보다 관심 또는 버리기 아까운 것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찾아 내는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8절).

그리고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함께 즐기자”고 하는 것은 음식을 먹고 축제를 열자는 것보다는 찾은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모두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는 이 모습이 바로 천국에서 복음을 통하여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에 대하여 함께 기뻐해 주는 천국 백성의 의미와 가치를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관심은 복음을 통하여 천국 백성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서는 차별 없이 모든 유대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2 절** “음식을 같이 먹는다”)

1.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마태복음 2:2** 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 **누가복음 23:3** 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 말이 옳도다”)
2.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적인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29** 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 **3:7** 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3. 하나님은 유대인을 사랑하시는 살아 계신 영적 유대인의 아버지입니다 (**마태복음 22:32** 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둘째, 예수님께서서는 잃어 버린 양을 반드시 찾아 오셨다는 것입니다 (**5 절** “찾은 즉 즐거워”)

1. 예수님께서서는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드리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0:15** 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2. 예수님께서서는 단 하나도 버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8:9** 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삽나이다” – **6:39** 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3. 예수님께서서는 자기 백성 하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마가복음 8:36** 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셋째, 예수님의 복음으로 모두가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9 절** “나와 함께 즐기자”)

1. 예수님의 최고의 기쁨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스바냐 3:17** 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2.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오직 구원입니다 (**누가복음 12:32** 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3. 구원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5** 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